

■ 신안 장산도 해상서 '퀀제누비아2호' 여객선 좌초

가슴 쓸어내린 시·도민...인명피해 없다는 소식에 '안도'

세월호·제주항공 참사 등 대형 재난 상흔 트라우마
항해사 운항 절차 위반·선장 감독 소홀 겹친 '인재'
해경, 항해사·조타수 체포...VTS 사전이상 미포착도

지난 19일 오후 8시께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퀀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를 지켜본 지역민들은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승객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대형 참사를 겪어온 지역사회는 다시금 깊은 트라우마에 휩싸였다.

▶관련기사 9면

2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전남 오후 4시45분 제주항을 떠난 퀀제누비아2호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우고 목포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오후 8시16분께 장산도 인근 무인도 '죽도'에 선체가 올라선 채 좌초됐다. 그 충격으로 승객 30명이 통증을 호소했으나 다행히 모두 경미한 부상으로 확인됐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지난해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비극의 기억을 떠올리며 밤새 불안 속에 구조 결과를 지켜봤다.

30대 강도 씨는 "사고 소식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잊을 만하면 대형 사고가 터진다"며 "제2의 세월호로 이어지지 않아 정말 다행이지만, 아직도 그때의 트

라우마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항해사의 운항 절차 위반과 선장의 감독 소홀이 겹친 명백한 '인재'로 드러났다.

목포해경은 일등 항해사 A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40대) 등 2명을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좁은 수역을 통과할 때 반드시 필요한 수동 조종 의무를 어기고 자동항법장치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초 조사에서 "조타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느라 조타 타임을 놓쳤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당시 선박은 시속 40~45km(약 22노트)로 항해 중이었다.

선박은 변침 지점을 지나 약 2~3분 뒤 무인도와 충돌했으며, 해경 관계자는 "정상 항로를 유지했지만 변침 시점이 1600m가량 지나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조타수 B씨 역시 항해 보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항해 총괄 책임자인 C 선장(60대)도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선원법 9조는 좁은 수로 통과, 충돌 위험 해역 접근 등 상황에서는 선장이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장이 조종 현장을 비운 것 자체가 명백한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전용 부두로 여객선 퀀제누비아2호 탑승객들이 구조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동하고 있다. 267명이 탑승한 퀀제누비아2호는 이날 오후 8시 16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방 죽도에 좌초됐다.

해경은 "선장의 직무유기가 사고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사고 당시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사전 이상을 포착하지 못한 점

도 논란이다. 사고 시각 VTS에는 관제사 1명만 근무 중이었으며 관제 대상 선박 5척, 주변 항로 선박 3척 등 총 8척만 관제 중이었

다. 그러나 센터는 신고 접수 이후에서야 사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목포=주홍준 기자 ju609911@gwangnam.co.kr

광주 첫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착공

옛 전방·일신방직 27만2955㎡ 규모...2028년 개점 목표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서는 광주 첫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가 20일 착공식을 열고 본격 개발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5면

이번 행사에는 현대백화점을 비롯해 광주시와 공공기관 관계자, 지역사회 주요 인사,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을 함께 기

원했다.

이번 착공식은 단순한 공사 시작을 넘어, 광주 도심의 미래 비전과 공간 활용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는 공개행사로 기획돼 상징성을 더했다.

행사에서는 '더현대 광주'의 비전과 공간 콘셉트를 소개하는 홍보영상이 상영됐고, 이어진 시민 인터뷰 영상에서는 지역

이 기대하는 복합문화공간의 모습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세계적 건축가 워일드 사프가 설계를 맡고, 최상위 브랜드 라인업과 호남의 자연을 모티브로 한 대형 식물원, 전통시장에서 착안한 로컬 마켓 등을 결합해 '더현대 광주'를 글로벌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더현대 광주의 출발을 응원해주신 광주시와 관계기관, 시민들께 감사드리

다"며 "세계적 설계와 최고 수준의 브랜드, 호남의 자연을 담은 식물원, 전통시장에서 영감을 얻은 로컬 마켓이 어우러진 글로벌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더현대 광주는 지하 6층, 지상 8층, 총 연면적 27만2955㎡ 규모로 조성된다. 이는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보다 약 1.4배 큰 규모로, 2027년 말 완공해 2028년 정식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옥상정원, 대형 미디어월, 도심형 수경시설 등 체류형 콘텐츠를 강화해 쇼핑·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진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허브'를 지향한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양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철강산업 침체...경영자금 지원

광양시가 철강 산업 침체로 산업위기에 직면하면서 정부로부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며 정책금융 등 지원을 받는다.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의 철강제품 50% 관세 부과 등 외부 충격으로 철강산업 의존도가 절대적인 광양지역의 피해가 심각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날부터 2년간 광양을 산

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시는 지난달 1일 철강 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이현규·광양=김귀진 기자 gnnews1@

토·일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서 계속

태양보다 뜨거워질
대한민국의 에너지新산업

에너지수도
전남

인공태양연구시설 구축은
전남이 답이다!

전라남도
JeollaNamdo